

전남 관광객 5000만시대 열렸다

지난해 5079만명 방문
경기도 이어 '전국 2위' 기록
시군별 '여수시' 전국 1위

전남 관광객 5000만명시대가 활짝 열렸다.

전남도는 지난해 1년동안 5079만명의 관광객이 전남 주요 관광지를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국 2위 기록이다. 시군별로는 여수시가 전국 1위에 올라섰다.

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7년 전국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광역단위에서는 전남도가 경기도(7643만 명)에 이어 두 번째

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말 전남 관광객수인 4279만 명보다 800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당초 전남도가 목표한 '2018 관광객 5천만명 유치' 목표를 1년 앞당긴 것이다.

시군별로는 여수시가 가장 많은 1508만 명이였다.

그 뒤를 이어 순천시 907만 명, 담양군 279만 명, 목포시 259만 명, 구례군 249만 명이였다.

특히 여수시는 2013년 공식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1위였던 용인시를 제치고 최다 방문지로 나타나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우뚝 섰다.

주요 관광지별로는 순천만 국가정원 612만 명,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 357만 명, 여수 오동도 315만 명, 여수 돌산공원 266

만 명, 담양 죽녹원 139만 명 순이었다.

도는 전국 브랜드화에 성공한 '남도한바퀴' 활성화 등이 한몫을 톡톡히 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올해 신안 새천년대교가 개통되고 오는 2020년 흑산도 소형공항이 개항하면 섬 비경을 조망하는 스카이 투어(Sky Tour), 광역투어버스 '남도한바퀴' 섬 코스 확대 등 전남 섬만의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방옥길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올해 '전라도 방문의 해' 사업을 통해 전남의 매력 있는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고, 장애인·어르신 등 누구나 전남을 찾을 수 있도록 무장애 코스를 개발하는 등 관광 환경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전남 무안군 몽탄북초교 폐교에 문을 연 '밀리터리 테마파크'.

/연합뉴스

육·해·공군 무기가 '무안'에 모였다

'밀리터리 테마파크' 개장

전남 무안에 '밀리터리 테마파크'가 문을 열었다.

무안군은 호남항공우주전시장 바로 옆 폐교인 몽탄북초등학교에 조성한 밀리터리 테마파크가 개장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테마파크는 항공기 전시에만 국한된 콘텐츠에서 벗어나 육·해·공군 무기전시, 시뮬레이션 체험장, 실내스쿠터사격장, 적성물자전시실, 유격체험시설, 호남항공전시관, 세미나실 등 다양한 전시·교육·교육·체험 콘텐츠를 갖췄다.

12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옥만호 장

군이 무안군에 기부채납해 운영 중인 항공우주전시장은 부지가 협소하고 항공기 전시에만 국한되는 등 미흡한 콘텐츠로 방문객 발길이 줄어들었다.

이에 군은 국비 등 28억원을 들여 폐교를 활용한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밀리터리 테마파크가 분단국가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기성세대에게는 옛 추억을, 전쟁을 모르고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분단국가의 아픔과 한국 군대역사를 깨우치게 하는 교육과 체험 장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바다 주제로 한 장난감, 구경오세요~”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바다와 장난감' 특별전 개최



오는 4일부터 해양유물전시관에서 '바다와 장난감' 특별전이 열릴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전남 목포) 전경.

/연합뉴스

“바다를 주제로 한 장난감 구경 오세요.”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전남 목포)가 오는 4일부터 8월 26일까지 해양유물전시관에서 '바다와 장난감' 특별전을 연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전시다. 삶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놀이와 치유의 공간인 바다를 재조명하고 바다 관련 놀이거리를 통해 장난감 기원과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기획했다.

전시는 총 4부로 과거의 흔적을 되짚어 보면서 인류의 놀이거리인 장난감의 기원에 대해 살피고 장난감의 변천을 통해 인류의 발전과 함께해온 장난감 역사를 조명한다.

제1부 '생명의 탄생지, 바다'에서는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다양한 산물을 통해 놀이거리의 기원에 대해 살핀다.

각종 조개류와 조개 가면, 흙으로 만든 인형 등을 통해 과거 놀이감에 대한 단서를 찾고 손놀림의 특성을 가진 각종 노리개와 장난구에서 장난감의 시초

를 유추해볼 수 있다.

제2부 '꿈과 상상력의 보물창고'에서는 감상과 수집의 대상이었던 완구(玩具)를 소개한다.

물고기 그림이 새겨진 분청사기나 물고기나 거북이 모양의 연적, 벼루, 문진 등의 바다와 관련한 문방구들을 통해 선조들의 바다에 대한 끊임없는 애착을 엿볼 수 있다.

제3부 '힐링의 바다'에서는 해변에서 휴가를 더욱 풍성하게 해준 장난감을 소개한다.

해수욕에 도움을 주던 튜브, 오리발, 물안경 등의 물놀이 장난감과 해변의 모래사장에서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게 도와준 다양한 손 장난감 등이 전시된다.

제4부 '모험과 탐험의 바다'에서는 거북선, 범선, 군함, 잠수함 등의 장난감을 소개해 실감 나는 해상전쟁의 세계로 초대한다. 꿈과 희망을 전해준 바다 모험, 탐험의 이야기를 다룬 만화영화도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가 더욱 풍성하게 돋보이도록 '조립아트'라는 현대예술의 한 장르인 블록 작품도 함께 전시하여 참신함과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고 한다.

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2일 "이번 전시가 바다의 또 다른 모습을 소개하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손때 묻은 장난감에서 최신 장난감까지 모두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김남중 기자

재정명 천년 기념 '보성군 군민헌장' 선포

전남 보성군은 10일 재정명(再定名) 천년을 기념해 새롭게 마련한 '보성군 군민헌장'을 선포한다고 1일 밝혔다.

보성은 통일신라 경덕왕 16년인 757년에 처음 보성군이란 이름을 얻었고 고려 성종 14년 995년에 폐주자사로 불렸다.

이후 고려 현종 9년 1018년에 다시 보성군이라 부르며 올해로 1000년이 됐다.

군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보성군 군민헌장 조례'를 5월 1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10일 '제44회 보성군민의 날' 선포한다.

군민헌장 서두에는 3경 3보향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보성군의 정체성'을 표현하였고, 새천년을 맞아 추진하는 '군

민헌장 개정의 당위성'을 기술했다.

본문은 천년의 역사문화와 청정자연,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 실현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민헌장 시안은 이 지역 출신 작가이며 최초로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3년간 연재되어 최근 출간된 대하역사소설 '이순신의 7년' 등 집필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정찬주 작가가 작성했다.

임정주 기획예산실장은 "새로운 군민헌장에 담겨진 의미를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되새겨 상생과 소통으로 군민이 행복한 보성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전남 보성=문병환 기자 m8527188@

보성군 패류 양식어장 재배치사업 잔결음

보성군은 '패류 양식어장 재배치사업' 추진을 위한 잔결음을 이어가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관내 패류 양식어장은 밀집된 어장으로 침적과 퇴적에 의해 환경 악화와 갯벌양식장의 여건변화 등으로 보성군 패류 생산량이 2005년 8830톤에서 2016년 1660톤으로 81%나 급감하고 있다.

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업권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의견수렴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마쳤다.

설문 결과, 어업권자 다수가 바다환경 개선을 통해 어장 생산성이 증대될 것을 기대하며 어장 재배치사업에 찬성하여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지난 3월에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패류 양식어장 재배치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 해왔으며, 이달에 재차 전남도,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사업이 반영되면 향후 10년간 총 45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밀집된 양식



어장이 경제지리식으로 재배치가 가능해진다.

어장 재배치는 육지와 인접한 어촌계 마을어업권부터 실시하고, 최대한 개별 어업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어업권자들이 패류양식에 차질이 없도록 연차별, 지구별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패류 양식어장 재배치를 통해 어장환경 개선 및 패류 생산성 증대를 꾀하여 어업면허의 기본목적인 계획생산, 품질제고 등 어업인 소득증대 향상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 보성=문병환 기자

장흥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수혜지역 선정

장흥군이 전라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수혜지역으로 선정됐다.

장흥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지역 지자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제도는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한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 사업을 시작했으나 당시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다.

이후 자연 재난에 의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 가입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은 태풍, 집중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 시상가침수, 상가지붕 훼손, 간판 파손 등 다양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보조 34%, 자부담 66%로 확정돼 기존 농어민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기준의 근로자 미만의 사업자면 가능하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사업체이며,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의 사업체로 한정된다.



장흥군청 전경

장흥군은 총지원대상을 상가 586개소와 공장 126개소를 합한 712개소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가입 목표를 10%로 정하고 7천5백만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달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는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남 장흥=이진우 기자